

- 주요 뉴스: 연준의 주요 인사, 금리인상 지속을 지지. 연말 정책금리 목표 수준은 상이
 - 미국 8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, 전주비 소폭 감소. 양호한 노동시장 반영
 - ECB 슈나벨 이사, 높은 인플레이션 고려 시 9월 큰 폭의 금리인상 가능
 - 터키 중앙은행, 정책금리 1.0%p 인하. 인플레이션 우려보다 경제성장에 초점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연준 인사들의 발언 및 상반된 경제 지표 등이 영향

주가 상승[+0.2%], 달러화 강세[+0.9%], 금리 하락[-1bp]
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양호한 기업 실적 등으로 매수세 강화
유로 Stoxx600지수는 에너지 및 기술관련주 강세 등으로 0.4%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일부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4주래 최고
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.9%, 0.6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향후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등이 배경
독일은 역내 고물가 우려 등으로 2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326.9원, +6.2원) 0.5% 상승, 한국 CDS 하락

		8/18일	8/17일	전일대비			8/18일	8/17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283.7	4,274.0	0.23%	국채 금리 10y	미국	2.88%	2.90%	-1bp
	유럽	440.76	439.03	0.39%		독일	1.10%	1.08%	2bp
	중국	3,277.5	3,292.5	-0.46%	CDS 5y	한국	35bp	36bp	-1bp
	일본	28,942	29,223	-0.96%		중국	72bp	72bp	0bp
	한국	2,508.1	2,516.5	-0.33%	위험 지표	EMBI+	-	424	-
환율	달러지수	107.49	106.57	0.86%		VIX	19.56	19.90	-1.71%
	유로화	1.0087	1.0180	-0.91%		WTI유	90.50	88.11	2.71%
	엔화	135.89	135.05	-0.62%	원자재	구리	363.2	358.4	1.34%
	위안화	6.7863	6.7811	-0.08%		금	1,758.6	1,761.8	-0.18%
	원화	1,320.7	1,310.3	-0.79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연준의 주요 인사, 금리인상 지속을 지지. 연말 정책금리 목표 수준은 상이

-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데일리 총재는 9월 FOMC에서 0.5%p 혹은 0.75%p의 금리인상이 합리적이라고 발언. 연말에는 정책금리를 3%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까지 높이고,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좀 더 인상해야 하다고 부연
- 정책금리를 인상한 후에는 당분간 그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, 만일 그렇지 않고 다시 곧바로 내릴 경우 이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. 다만 과도한 통화긴축을 통해 경기를 필요 이상의 수축 국면으로 유도할 필요는 없다고 첨언
-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블라드 총재는 경제 여건을 고려한다면 9월 FOMC에서 0.75%p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. 아직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했다고 볼 수 없으며, 정책금리는 연말에 3.75%~4.00%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
- 또한 경기침체 발생 우려는 과장되었고, 내년 정책금리 인하 기대도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. 금융시장 여건이 완화되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, 금융시장 여건이 실제로 완화된다면 이는 보다 강력한 통화긴축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
- 한편 미네애플리스 연은의 카슈카리 총재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신속히 낮춰야 하며, 이를 위해 경기침체 유도도 감내할 수 있다는 의견 피력. 캔자스시티 연은의 조지 총재는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금융여건이 완화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수준 하락이 명확히 나타날 때까지 정책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8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, 전주비 소폭 감소. 양호한 노동시장 반영

- 해당 건수는 25만건으로 전주(25.2만건) 대비 줄었으며, 이는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수급이 팽팽한(tight) 상황임을 의미. FWDDBONDS의 Christopher Rupkey는 이번 결과가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 유지를 뒷받침한다고 평가

■ 미국 7월 기존주택 판매, '20년 5월 이후 최저. 주택가격 상승세는 둔화

- 해당 판매는 연환산 481만건으로 전월(511만건) 대비 감소했고, 모기지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수요둔화가 주택가격 하락을 유도. 한편 기존주택의 중위가격은 전년동월비 10.8% 상승한 40.3만달러. 다만 상승세는 전월에 비해 약화

■ ECB 슈나벨 이사, 높은 인플레이션 고려 시 9월 큰 폭의 금리인상 가능

- 7월 이후 인플레이션 전망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, 경제 여건의 변화도 없다고 진단. 단기적 시각에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지속이 예상되며, 인플레이션을 목표(2%) 수준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
- 한편 유로존은 향후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, 경기둔화가 발생한다고 해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악화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언급

■ 유로존 7월 소비자물가(확정치), 속보치와 동일. 에너지 및 식품가격 급등이 원인

- 해당 소비자물가(CPI)는 전년동월비 8.9% 올라 속보치 대비 보합. 이번 결과는 에너지 및 식품가격의 큰 폭 상승에 기인. 다만 이들 요소를 제외한 근원 CPI가 연간 5.1%의 상승률을 기록해 ECB의 목표(2.0%)와 비교할 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

■ 노르웨이 중앙은행, 인플레이션 억제 위해 정책금리 0.5%p 인상. 추가 인상 예고

- 정책금리를 0.5%p 높은 1.75%로 제시. 이는 7월 소비자물가의 연간 상승률이 4.5%로 6월(3.6%) 대비 큰 폭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. 한편 고물가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통화긴축이 필요하다고 평가

■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, 은행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을 조사. 체계적 위험 진단이 목적

- 이번 조사를 통해 은행들이 건설업체에 대출을 제공할 때 규정을 정확히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. 한편 부동산 관련 위험을 관리하는 동시에 건설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대출을 제공한다는 기조를 유지할 방침

■ 터키 중앙은행, 정책금리 1.0%p 인하. 인플레이션 우려보다 경제성장에 초점

-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정책금리를 1.0%p 낮춘 13%로 결정. 최근 향후 경기둔화 가능성을 나타내는 경제지표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으며, 이에 경제성장 동력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8/18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8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: 6.2, 7월(-12.3), 예상치(-5.0)
- 유로존 6월 건설생산(전월비): -1.3%, 5월(-0.33%), 예상치(-)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미국 금융권, 연준의 통화긴축 기조 지속에 회의적 - WSI

(In High-Stakes Inflation Game, Wall Street Bets the Fed Is Bluffing)

- 다수의 연준 인사들은 고물가로 인해 금리인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. 하지만 주가와 채권금리의 움직임은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및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를 시사. 이러한 상반된 모습은 투자자들이 주가 급락 시 연준이 금리인하 등의 조치를 통해 시장 안정을 유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
- 금년 상반기에는 투자자의 이에 대한 믿음이 약했으나, 최근 파월 의장의 여러 발언들로 다시 강화되는 모습. Leuthold Group의 Jim Paulsen은 연준이 현재 매파적이어도 수개월 내 비둘기파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. 연준이 향후 인플레이션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으나, 시장은 연준의 태도 변화 가능성에 무게

■ 미국 기업의 보유현금 감소, 경기둔화 시 완충자본 부족할 가능성 - Financial Times

(Companies burnt through a record amount of cash in Q2)

- 투자적격등급 기업의 2/4분기 현금 및 유동증권 보유액이 전년 대비 20% 감소. 이는 고물가에 따른 현금가치 하락 등으로 자사주 매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. 특히 필수소비재 및 통신부문 기업의 보유현금은 장기평균을 하회
- 이러한 현상은 경제활동 둔화 및 금융여건 긴축 상황 속에서 기업의 완충자본 결핍을 초래할 소지. 일부에서는 최근 장기금리 인하 등 금융여건이 완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,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폭이 확대되는 등 경기 침체 신호가 지속되고 있어 완충자본 부족에 대한 대비가 필요

■ 미국 소매경기 침체의 종언, 성장과 물가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분수령 - 블룸버그

(The End of the Retail Recession Is Good — or Maybe Bad)

■ 일본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, 7월 물가상승에도 지속될 전망 - 블룸버그

(Japan's Inflation Getting Harder for Kuroda to Explain Away)

■ 노르웨이, 유럽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가격 인하에 공조가 요구 - Financial Times

(It's time for Europe to ask Norway to cut the price of gas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